6-Episode Seasonal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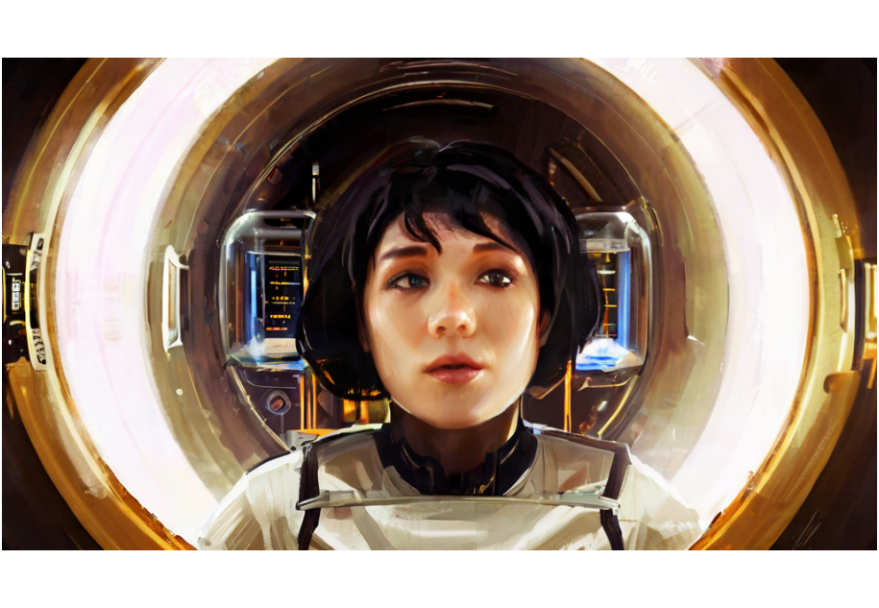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EPISODE 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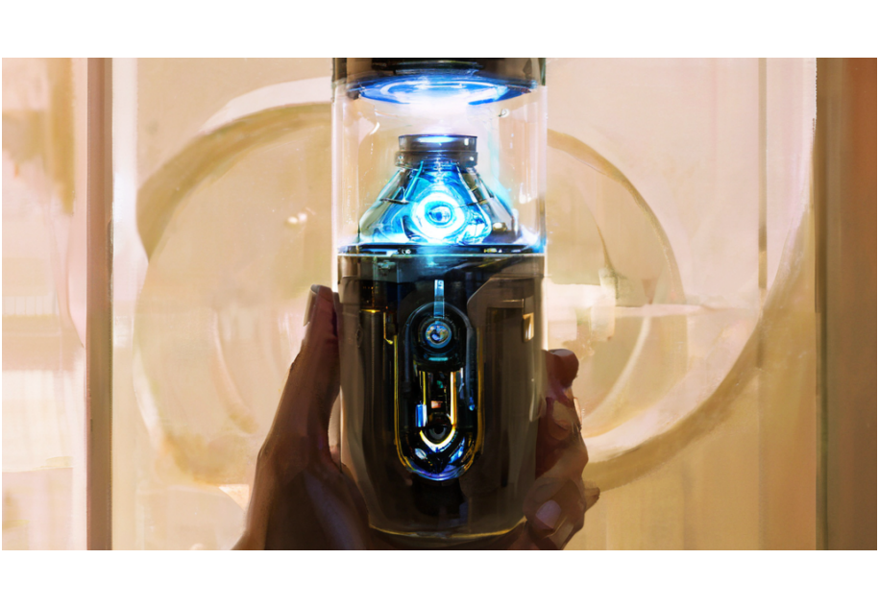
눈을 뜬 채 굳어 있는 소연의 얼굴. 소연은 네모 기지 어딘가에서 캡슐 안에 들어간 채였다.



네모 부대원들은 모니터로 소연의 검사 결과 수치를 바라보고 있다. 지희가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네모에게 결과 수치를 해석해 주었다.

"바이탈 수치 100%, 멘탈 수치 80%입니다. 의외로 안정적이네요."
"역시 그런 건가."
"아마도요."
"캣츠아이는?"

낯선 모양새의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캣츠 아이. 유다가 기계와 캣츠 아이를 점검하며 말했다.



"일단 뉴럴 링크에는 잘 접속이 되어 있구요. 스타링크에도 올려 놨습니다. 명령하시면 바로 디멘탈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말에 네모가 대답했다.

"도달 범위는?"
"국내는 다 커버 가능합니다."
"소연과의 링크는?"
"제로입니다. 아마 원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겠지."
"어떻게 할까요? 디멘탈을 실행하면 국내 모든 클론이 멜트다운 시작될 확률 88%입니다."

네모가 고개를 숙이고 고민하다 질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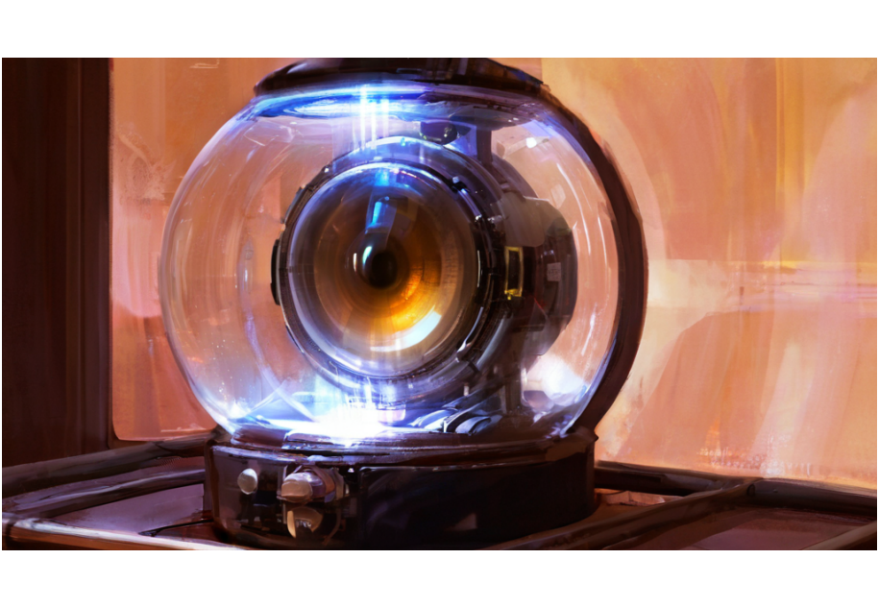
"블랙리스트에만 타겟팅하는 것도 가능한가?"

유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가능합니다. 국내 범위 내에 있다면 타게팅 공격도 가능합니다."
"그럼 우선 탑 리스트에게만 실행하도록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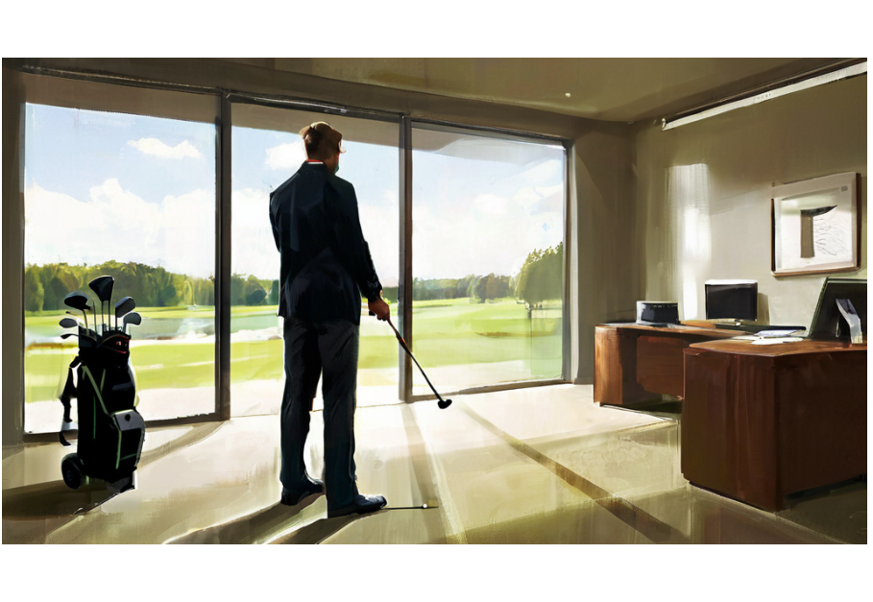
네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유다는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며 탑리스트들을 클릭했다.
모니터에 뜬 지도 위에 표시되는 여러 타겟 표시들을 보며, 유다는 다시 런치 활성화 버튼을 눌렀다.

캣츠아이가 환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

김 의원은 온 신경을 골프 공에 집중했다. 김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친 골프 공은 홀 옆으로 휑 지나가 버렸다. 김 의원은 괜히 채에 문제가 있다는 듯 채를 살펴보며 말했다.



"채가 이상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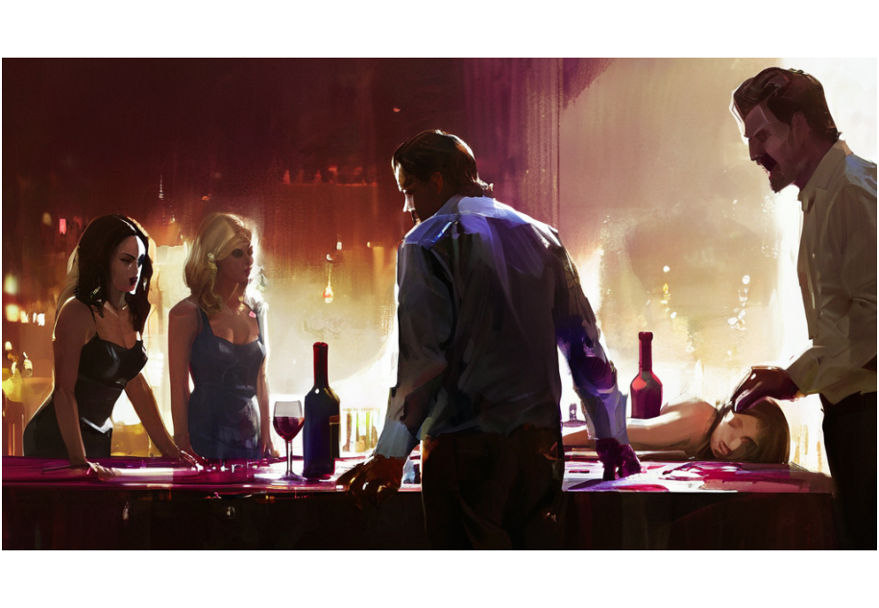
골프 채를 살피던 김 의원은 이상한 감각이 온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저항할 새 없이 빠르게 옥죄여 오는 감각에 김 의원은 얼굴을 더듬더듬 만지며 어떻게든 저항하기 위해 괴성을 질러보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두 눈이 갑자기 휙 돌아버리더니, 골프 채로 자기 방 안의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다. 한참동안 물건을 부수던 김 의원은 이내 갑자기 전원이 내려간 로봇처럼 풀썩 쓰러져 죽었다.

❖

높으신 분들을 접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주 이용되는 어느 룸싸롱에서 난잡하게 놀고 있던 이 회장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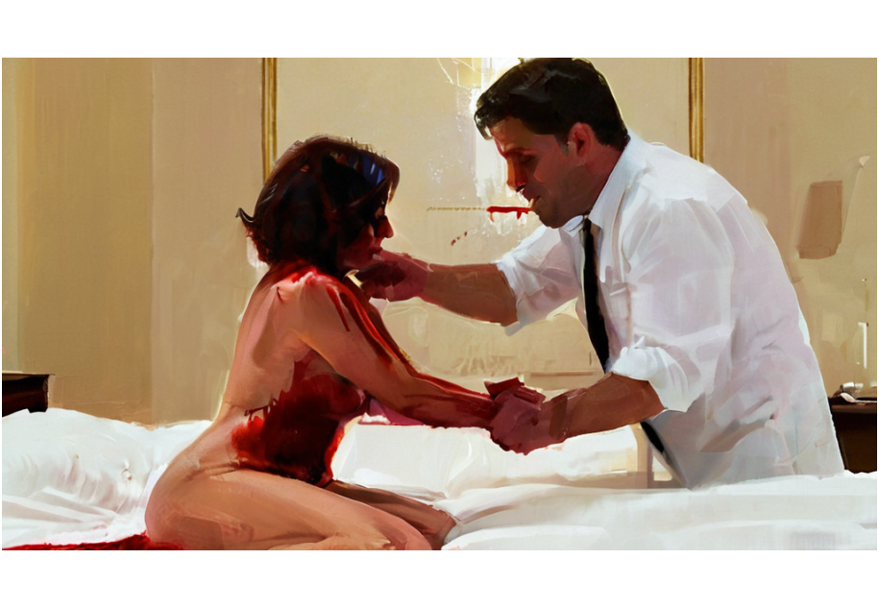
이 회장의 몸이 순간 경련하더니 눈이 뒤집혔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회장의 안부를 묻기도 전에 이 회장은 테이블 위에 올려진 물건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더니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좀비처럼 공격하는 이 회장에게 저항은 무의미했다. 갑자기 시작된 난동은 이 회장이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 앉아 죽으면서 끝났다.

❖

침대에서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있던 강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여자를 끌어안는 도중에 갑자기 강 의원의 몸이 경련하더니 눈이 뒤집어졌다. 강 의원을 상대해주던 여자가 무슨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갑자기 강 의원이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좀비처럼 공격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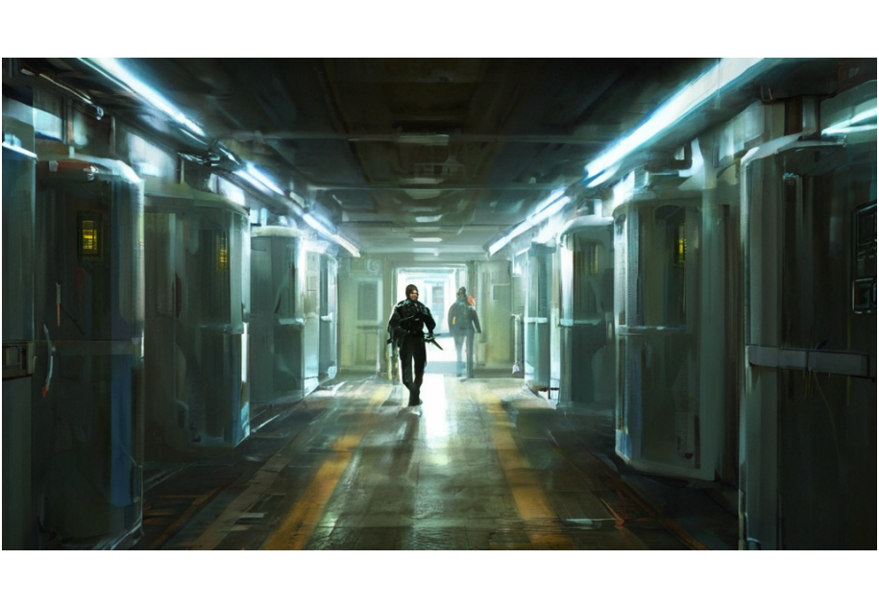


여자는 침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강 의원의 공격을 피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강 의원은 도망치려는 여자의 발목을 잡아 당기더니 좀비처럼 찢기 시작했다.

여자의 저항이 멈추고, 숨도 멈추자 여자의 시체를 바라보던 강 의원의 의식이 그제야 돌아왔다.

"멜트다운… 내 몸… 내 몸!"

강 의원은 다급하게 지하 창고를 향해 뛰어갔다. 경련이 일어나고 다시 눈이 뒤집히려는 감각에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창고에 주욱 늘어진 캡슐들을 노려보았다. 젊고 잘 생긴 남자들의 몸이 들어가 있는 캡슐들을. 개중에는 아무 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빈 캡슐도 있었다. 강 의원은 빈 캡슐로 들어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빨리 버튼을 눌렀다. 버튼을 누르는 것과 동시에 일시정지 된 것처럼 강 의원의 움직임이 멈췄다.



"콜록…"

그와 동시에 어디선가 힘겨운 노인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창고 구석에 놓인 안락 의자에 앉아 있던 노인이 눈을 떴다.

이 노인이 바로 강 의원의 본래 몸이었다. 강 의원은 본래 노인의 몸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 죽될 뻔 했네… 뭐야… 갑자기…"

노인의 몸에 어울리지 않는 말투였다.

*

동녘의 잠을 깨운 것은 갑작스럽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였다.

'긴급 상황 발생! 전원 전략실로 모일 것!'

동녘은 황급하게 자신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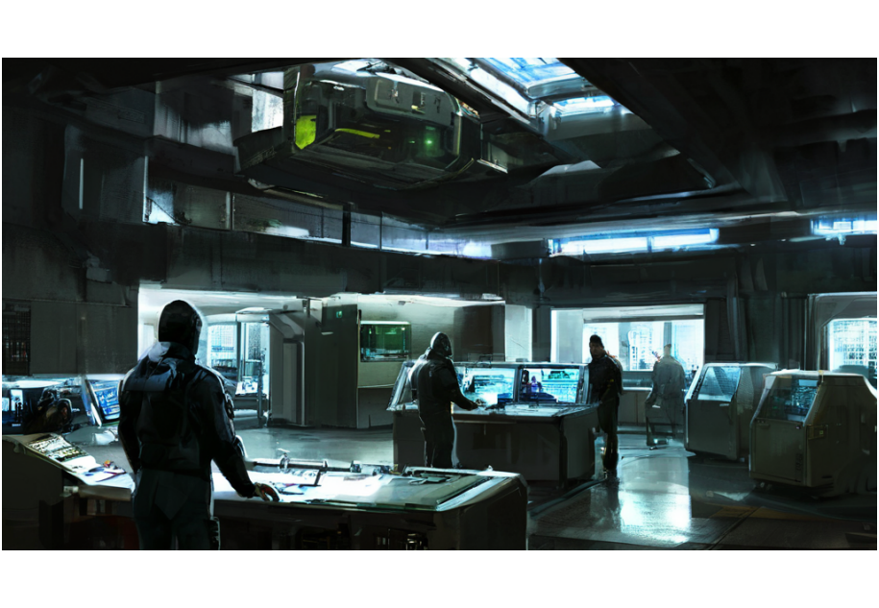
"소연 씨! 빨리 일어나요!"

이 소리에 대답한 것은 동녘 자신이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동녘의 몸 속에 들어간 소연의 의식이었지만.

"뭐예요, 갑자기…."
"일단 가요!"

❖

오리엔티스 전략실 내부를 빽빽 채운 스크린에는 사고 현장과 출동 현장의 모습이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었다. 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 앉아 한재호에게 이목을 집중했다.



"현재 멜트 다운 개체 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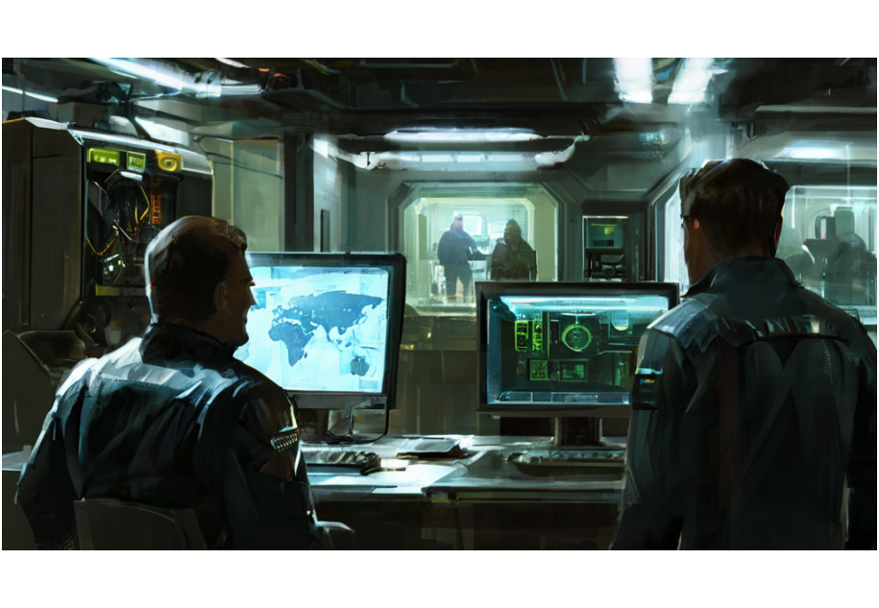
준호는 스크린을 검색하며 대답했다.

"13개체입니다. 다 저희 A 리스트 인물들입니다."
"응급 출동은 했고?"
"네, 모두 응급 들어가 있습니다."
"생존율은?"

멜트다운이 일어나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련의 영상들을 보며, 준호가 대답했다.

"신고가 빨리 들어와서 80퍼센트 이상입니다만, 다른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음…"

한편, 태웅과 치수는 다시 캡슐에 들어간 동녘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소연의 멘탈 레이트는?"

태웅이 치수에게 물었다.

"70%이고 점점 떨어져가고 있어요. 동녘의 멘탈은 100%를 유지하고 있지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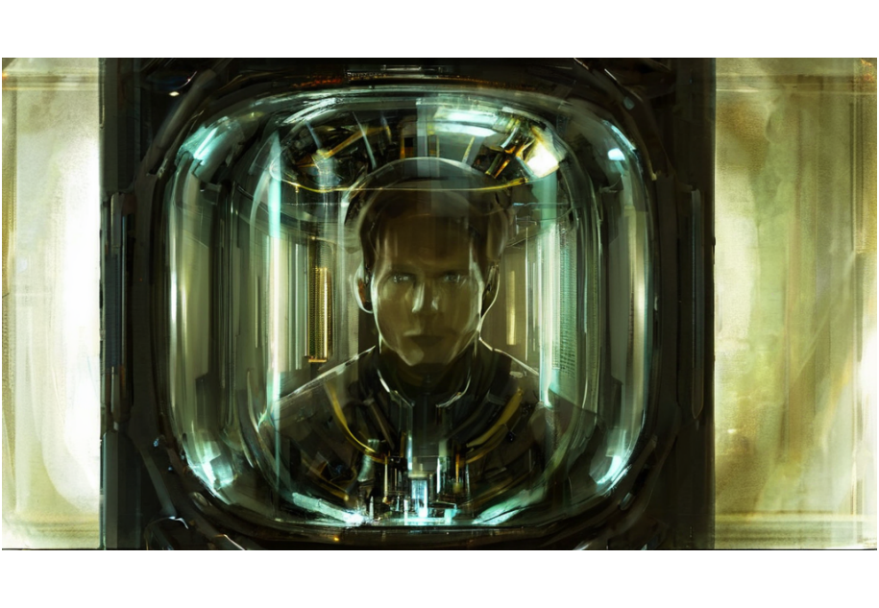
태웅은 소연의 의식이 담긴 동녘을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소연아. 내 말 들려? 의식은 좀 어때?"
"아직 견딜만 한데…."

소연이 동녘의 몸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소연이 아닌 동녘의 말이었다.

"저… 제가 자꾸 소연 씨 기억 같은 걸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건데?"

태웅이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러자 동녘이 갸우뚱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글쎄요, 자꾸 어디선가 떨어지는 느낌 같은 건데…"
"소연이 기억 맞아? 네가 꿈꾸는 건 아니고?"
"그건 저도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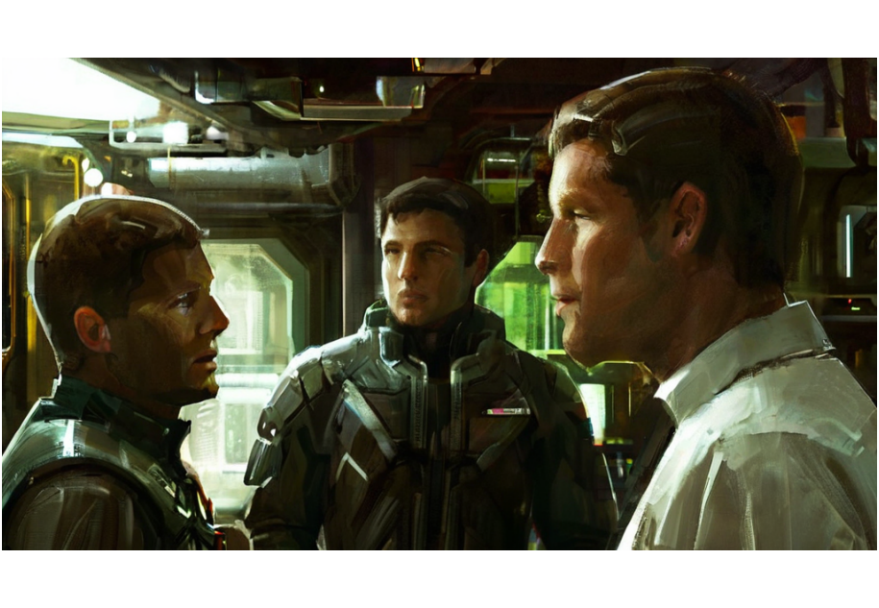
소연이 동녘의 몸으로 대답했다.

"난 어디서 떨어진 적 없어. 네 꿈일 거야."

동녘의 말에 태웅이 고심하다가 태섭에게 물었다.

"소연의 바디 위치나 캣츠아이 위치는 아직 파악 안 되고?"
"아까까지는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저쪽에서 공격한 이후에 신호 발신 위치가 몇 개 포착되고는 있습니다."
"분석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 것 같아?"
"12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 알겠어. 더 서둘러줘."
"네."

태섭과의 대화가 끝나자, 태웅은 재호를 보며 말했다.



"일단 네모 측에서는 A 리스트에만 타게팅을 하고 전방위 공격을 하지 않은 건 다행인데, 이거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전체 클론에게 디멘탈을 하면…"
"네모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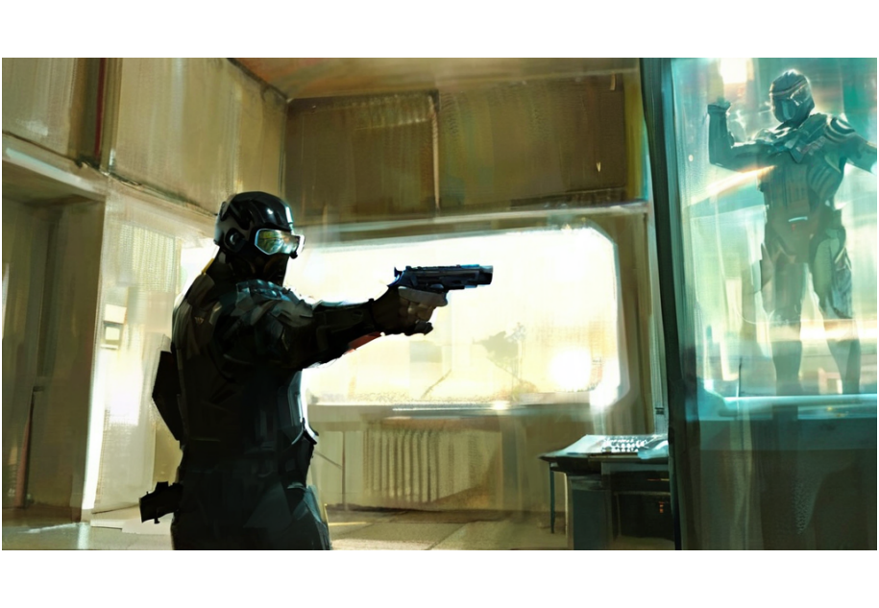
태웅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너무 낙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모는 미치광이입니다! 인신매매를 해서 불법으로 몸을 유통하는 자에요. 클론을 파괴해서 더 많은 클론을 양산하려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네모는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너도 알고 있지? 네모는 원래 나의 동료였다는 걸. 너희 아버지와 함께."
"네….."

태웅은 어린 시절, 실험 캡슐 안에 들어간 상태로 목격했던 장면을 회상했다.

❖

네모가 아버지, 백호에게 총을 겨누고 있던 모습을. 백호는 비명을 지르며 실험 캡슐의 문을 두드렸지만 캡슐 안의 소리는 캡슐 안에서만 공허하게 맴돌 뿐이었다.



"네가 왜 이러는 거야? 내 기술이 탐나서? 하지만 안돼. 이건 넘겨줄 수 없어. 이건 너무 위험한 기술이야."

백호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네모는 백호의 가슴에 두 발을 쐈다. 백호가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지자 네모는 백호를 어깨에 들쳐 업고 실험실을 빠져나갔다.

젊은 재호가 실험실에 들어와 바닥의 피를 보고 상황을 파악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캡슐 안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태웅을 발견하고, 꺼내 안으며 재호가 물었다.

"태웅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총 소리 여기서 난 거 맞아?"
"삼촌이 아빠를 죽였어요!"

Continued to ep.08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